

번역투 관점에서 본 번역 텍스트의 품질 향상 방안* (과학 분야 번역 텍스트 중심)

이 근 희
(세종대)

1. 들어가는 말

번역활동의 결과물인 번역텍스트를 둘러싸고 번역행위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는 제각각 번역텍스트의 품질이 우수하기를 바란다. 번역가라면 누구나 자신이 피땀 흘려 공들인 번역 텍스트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을 타인에게 받아 향후 보다 나은 지위와 수입이 보장되기를 바라고, 번역을 의뢰한 개인이나 출판사, 단체, 정부기관 등은 번역을 의뢰한 목적이나 번역 텍스트의 기능에 적합하면서 자신들이 독자에게 원했던 반응과 행동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번역 텍스트를 읽는 독자는 번역 텍스트에서 전하는 정보나 메시지가 쉽게 읽혀지고 이해되며 적절한 신정보와 그에 걸맞은 처리 비용이 소요되길 바란다. 그렇기

* 본 연구는 2007년 11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의뢰한 글로벌동향브리핑(GTB) 기사 100건에 대한 번역투 분석을 토대로 이뤄진 연구결과이다.

에 번역 텍스트를 생산하는 번역가는 자신의 기대뿐 아니라, 번역 행위와 이런 저런 이유로 관련을 맺는 다양한 객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번역 텍스트의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번역 평가가 이뤄지는 다양한 단계와 결부해 번역 텍스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번역자가 가장 손쉽게 자신의 번역 텍스트의 품질을 향상시켜 다수 일반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과정은 이미 완성된 번역 텍스트를 표본 추출해, 번역 품질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번역투를 찾아 이를 수정한 ‘수정 후 번역문’과 ‘수정 전 번역문’을 비교해 품질이 향상됨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과학 전문 웹사이트 상 게재된 100건의 과학기사에서 번역투를 찾아 유형별, 빈도순으로 분석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유형별, 빈도순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번역자가, 자신도 모르게 생산하는 전형적인 번역투에 무엇이 있으며, 어떤 빈도순으로 나타나는지를 안다면 자신의 최종 번역단계에서 이를 골라 수정하는 작업만으로도 번역 텍스트의 품질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번역투의 정의, 유형, 발생 이유, 대안 등은 선행 연구인 이근희(2005), 오경순(2007)의 연구를 토대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번역투의 전형적인 발생 유형을 유형별, 빈도순으로 밝힌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은 번역 텍스트라고 생각하는 텍스트가 어떤 텍스트인지 알아야겠기에 번역 텍스트의 평가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2. 번역 텍스트의 품질 평가

어떤 번역이 잘 된 번역이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번역 텍스트가 어떤 기능을 하는 지, 번역 텍스트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번역 텍스트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겠지만 모리스 페르니에(Maurice Pergnier)가 언급하듯 외국어 학습을 위한 기능이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발화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한 기능이나, 언어라는 장벽 때문에 구어나 문어 텍스트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토록 하는 기능을 대표적인 기능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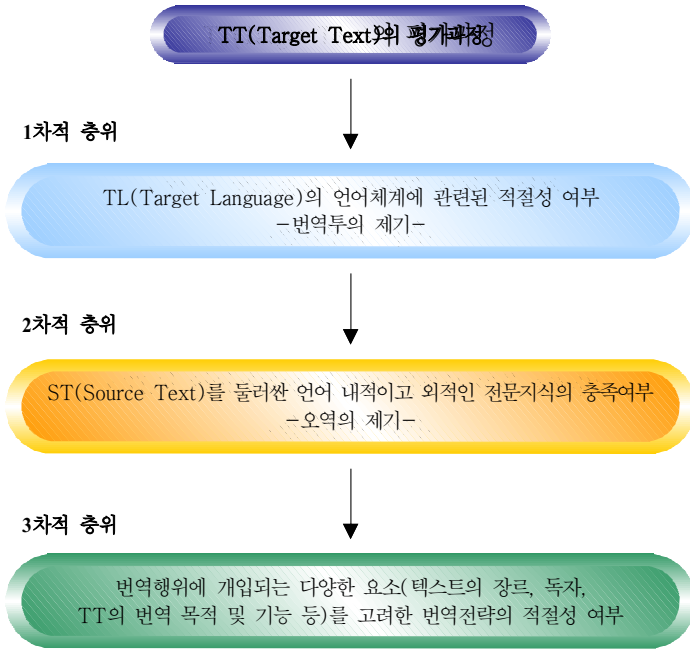
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원어를 몰라 원천 텍스트에 직접 접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 원천 텍스트에서 전하는 메시지에 닿도록 하는 마지막 기능이 번역 텍스트의 진정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김현권·노윤채 옮김 14). 따라서 번역 텍스트는 원어를 모르는 일반 독자가 주 대상이고, 독자에게 메시지가 잘 전달되려면 번역 텍스트에 쓰인 표현이 의도된 독자에게 익숙한 목표 언어 체계와 용법에 적합해야 한다. 바스티(L. Bastit)는 자신의 번역 경험에서 얻은 번역 과정을 제시하면서 번역가가 마지막 단계로 해야 할 일은, 번역어가 모국어이고 원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한 번 읽혀서 번역의 ‘명료함’과 ‘자연스러움’을 검증받는 일이라 했다(전성기 옮김 34-35).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는 번역 텍스트란 원어로 전하는 메시지와 가장 근접하면서 목표 언어 체계와 용법에 자연스러운 등가물이라고 정의한다. 자연스러운 번역이란 특정 메시지의 맥락에 적합할 뿐 아니라 수용 언어 및 문화에 적절하고 수용 언어의 독자층에 적합한 번역이다(166-167). 물론 원문에 실린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 전체이다.

이상으로 살펴보면 번역 텍스트의 품질은 원천 텍스트의 의미나 메시지를 올바르게 표현했는가 하는 ‘정확성’과, 목표 언어 체계와 용법에 비추어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어휘나 표현을 선택했는가 하는 ‘적절성’과 ‘자연스러움’에 달려 있다. 번역 텍스트의 품질을 담보하는 ‘정확성’은 원천 텍스트를 둘러싼 원천언어 내적이며 외적인 지식 총족에서 얻어질 수 있고, ‘적절성’과 ‘자연스러움’은 목표언어 내적이며 외적인 지식총족에서 얻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정확성’과, ‘적절성’ 및 ‘자연스러움’이 번역 평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자. 일반적으로 번역된 텍스트의 품질을 제일 먼저 평가하는 사람은 대다수 일반 독자이다. 이들은 번역 텍스트의 품질을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며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정확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목표 언어에 해당하는 것대로 번역문의 ‘적절성’과 ‘자연스러움’을 평가한다. 그 이유는 이들이 목표 언어권의 원어민이긴 하지만, 원천 언어와 문화를 잘 아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가 원천 언어를 알 수 있다 해도 말이다. 일반 독자는 목표 언어 체계를 토대로 단어 선택이 적절한가, 단어와 단어의 나열이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가, 문장이 문법에 맞는가. 단어들의 쓰임이 관용적이거나 화용적인 쓰임에 적절한가를 무의식적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는 원천 언어, 문화, 해당 분

야를 잘 아는 전문가가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해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는가 여부를 확인하며 잘못 번역된 부분을 찾는다. 즉 번역가가 원천 언어는 물론이고, 원천 문화에 관한 전문 지식과 원천 텍스트에서 다루는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잘 알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번역 전문 비평가가 번역에 개입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고려하고 번역의 목적에 알맞은 번역 전략을 구사했는가 여부를 평가한다. 이때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서 걸러지는 부정적인 번역 평가 요소가 번역투와 오역이다. 번역투는 목표 언어 체계에 비추어 어휘적, 문법적, 관용적, 화용적 쓰임에서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러운 표현이고, 오역은 원천 텍스트를 둘러싼 원천 언어와 문화 및 전문 지식을 번역가가 갖추지 못해 잘못 번역한 표현이다. 이상이 이근희가 [도표 1]에서 설명하는 번역 평가 과정이다(이근희 2008 87-96). 이를 토대로 번역 텍스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면, 먼저 번역투를 없애는 방법에서 찾을 수 있고, 둘째는 오역을 없애는 방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셋째는 번역 전략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번역 텍스트를 평가하는 평가 주체의 규모면에서 살펴보자면, 일반 독자의 규모가 제일 크고, 원천 언어와 문화 및 해당 관련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 규모가 그 다음이며, 번역에 관한 전문 비평가 규모가 가장 작다. 따라서 번역가는 일반 독자가 번역 텍스트를 평가하며 걸러내는 부정적 평가 요소인 번역투에 초점을 맞춰 번역 텍스트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도표 1] 번역 텍스트의 평가과정



3. 번역투 관점에서 본 번역 텍스트의 품질 향상 방안

번역가가 의도적이며 전략적으로 번역투를 활용한 예를 제외하면, ‘번역투’는 번역에 개입되는 두 언어 체계가 엄연히 다른데 번역자가 두 언어 간의 차이를 모르거나 간과해 원천 언어에 관한 번역자의 지식이 목표 언어 구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번역자는 거듭되는 초벌이나 재벌 과정에서 번역투에 주의를 기울여 번역 텍스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래도 생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최종 번역 단계에서 자기가 마치 자신의 텍스트를 읽는 일반 독자인양 텍스트를 읽으며 대표적인 번역투를 걸러만 내도 번역 텍스트의 품질을 상당부분 향상시켜 가독성을 올릴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런 가설이 맞는지 여부를 완성된 과학 분야 번역 텍스트 가운데 하나를

이용해 입증하고, 더 나아가 완성된 과학 분야 번역 텍스트를 다수 분석해 번역투를 유형별, 발생 빈도순, 전체 번역투에서 차지하는 특정 번역투의 백분율을 따져 번역자가 손쉽게 자신의 번역 텍스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3.1 완성된 번역 텍스트에서 번역투를 수정하기 전(前)과 후(後)

다음에 제시한 짧은 번역 텍스트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¹⁾에서 제공한 100건의 글로벌동향브리핑(GTB-Global Trends Briefing)²⁾ 기사에서 하나를 무작위로 발췌해 일부만 제시한 부분 텍스트이다. 이 번역문에서 번역투를 걸러내 수정해 수정 전과 수정 후 번역 텍스트를 비교한다. 번역 텍스트의 품질 평가 및 향상을 위한 것대로 사용하는 번역투에는, 영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발생하는 번역투 유형과(이근희 2005 43-84), 일본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발생하는 번역투 유형을(오경순 40-114) 적용한다.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와 한국어 체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양 번역투에는 서로 겹치는 유형도 있어, 어느 언어의 간섭에서 비롯된 번역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역사상 영어 텍스트를 일본어로 번역한 텍스트를 한국어로 중역한 시대가 있어 이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그 관계를 밝히는 일과도 같고, 어차피 원천 텍스트 없이 한 사람의 독자인양 읽으며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럽고 맞지 않는 부분을 가리는 일이라 어떤 언어 체계에서 비롯된 번역투인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번역 텍스트에 적용한다.

- 1)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를 위한 연구와 개발을 하고, 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국가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 발전 및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이다. 과학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과 분석 및 관리를 하고, 정보 관리와 유통에 관한 기술·정책을 표준화하는 등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과학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한다.
- 2) 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해외 주요 사이트, 전문학술지, 분석보고서, 기술 동향보고 리뷰, 신문 등에 게재되는 동향정보는 물론 미래예측정보, 유망기술 산업 및 시장 정보,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주재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정책, 항공우주, IT, BT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00 여명의 지식정보 제공자가 매일 실시간으로 등록해 제공한다. <http://radar.ndsl.kl/index.do> 참조.

[번역투를 수정하기 전 번역 텍스트]

핸드폰을 이용한 단문메시지 및 이메일 입력이¹ 친숙한 일본의² 10대부터 20대 아마추어 작가들이³ 픽션소설시장에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⁴. 인터넷과 모바일 웹을 통해⁵ 그들⁶은 그들⁷만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이야기들을⁸ 쏟아내고 있는⁹ 것¹⁰이다. 대표적인 핸드폰 작가인 22세의¹¹ 가정주부인 사토미 나카무라 (Satomi Nakamura)는 PC가 쓰기는 편할지 몰라도,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부터 쓰기 시작한 핸드폰이 저한테는 더 편한걸요라며¹² 새로운 작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¹³을 알고 있다¹⁴. 고등학교에서 재회한 초등학교 친구들의¹⁵ 이야기를 다룬 사토미 나카무라의¹⁶ 대표작 To Love You Again¹⁷은 200페이지의¹⁸ 단편소설로 2,000명이 넘는 독자들이¹⁹ 그녀의²⁰ 소설을 구독하고 있다²¹. 모바일 소설의²² 대부분의²³ 독자들은²⁴ 10대인데, 이들은 핸드폰을 집단일기, 음악 감상, 모바일소설 등 다양한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²⁵. 일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가 진행 중인 것²⁶이다.

(2007-09-28 통신)

[번역투를 수정한 번역 텍스트]³⁾

핸드폰을 사용한 단문메시지 및 이메일 입력에 익숙한 10대나 20대 비전문 작가가 요즘 일본 픽션소설 시장에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킨다. 이들은 인터넷 모바일 웹으로 자기들만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이야기를 쏟아낸다. 대표적인 핸드폰 작가 사토미 나카무라(Satomi Nakamura)는 22세 가정주부로서 “PC가 쓰기는 편할지 몰라도,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쓰던 핸드폰이 저한테는 훨씬 편한 걸요.”라며 새로운 작가의 출현을 알린다. 사토미 나카무라 작품 가운데 대표작인 “넌 다시 사랑하기 위해”(To Love You Again)는 고등학교에서 다시 만난 초등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다룬 200쪽 단편소설로 현재 2,000명이 넘는 독자가 구독한다. 모바일 소설을 읽는 대다수 독자가 10대로서, 이들은 핸드폰을 집단일기, 음악 감상, 모바일소설 등 다양한 활동에 이용한다. 일본에서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가 뜬다.

3) 필자가 번역투를 수정해 대안으로 제시한 예이다. 원 번역 텍스트에 있는 번역투 표현뿐 아니라 어순이나 품사를 바꾸기도 했다. 정교하지 못한 부분은 원문이 없는 관계로 품질 향상에 한계가 있으나, 연구 목적이 원문과 대조하지 않고 최종 단계에서 번역투만을 걸러내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일이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짧은 텍스트인데도 수정 전 번역 텍스트에서 대략 26개나 되는 번역투를 찾을 수 있다. 유형별로 번역투를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 번역투 1: 한국어에서는 부정명사(무생물 명사)에 주격조사 ‘-이/가’를 사용할 수 없다.
- 번역투 2, 11, 15, 16, 18, 20, 21: 일본어 격조사 ‘の’를 번역할 때 사용하는 관형격 조사 ‘-의’이다. 간략하게 표현한다는 구실로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런 장점보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해지며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아 단점이 더 크다. 생략하거나 맥락을 따져 적절히 표현하는 편이 가독성을 높이고 의미를 이해하기 쉽다.
- 번역투 3, 8, 19, 24: 복수접미사 ‘-들’이 필요하지 않은 맥락이다. 맥락으로 보아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거나, 수사(數詞)로 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명사에 복수접미사 ‘-들’을 표기하지 않는 방법이 한국어 어법으로 적합하다. 또한 맥락상 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해도 수가 중요하지 않다면 단수인지 복수인지 수 표지를 하지 않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 번역투 4, 9, 13, 14, 21, 25: 영어 진행형 시제 'be v+ing'와 일본어 ‘동사+ていゝる’ 구문에서 영향을 받은 ‘-고 있다’는, 한국어에서는 현재와 과거 시제만 있으므로 맥락상 적절한 시제로 바꾸어 표현해야 한다. 단순 현재나 과거로 표현해서 의미가 부족하다 싶으면 적절한 부사로 의미를 보완한다.
- 번역투 5: 영어 ‘through’ 부류 부사나 접속사에서 비롯된 ‘통해’는 용언 ‘통하다’에 어미를 활용했으나 이 용언이 지닌 의미가 ‘막힘이 없이 들고 나다’, ‘어떤 곳에 무엇이 지나가다’, ‘어떤 방면에 능하고 잘 알다’, ‘어떤 행위가 받아들여지다’인 반면, 예로 든 번역문의 맥락상 의미가 ‘인터넷 모바일 웹을 이용해’이므로 적절한 어휘 선택이 아니다.
- 번역투 6, 7, 20: 한국어에서는 대명사가 ‘관형사+불완전 명사나 완전 명사’의 형태를 띠므로 ‘그들’이나 ‘그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대명사를 쓰기 보다는 맥락상 생략해도 의미전달에 전혀 영향이 없다면 생략하는 방법이

4) 출판된 책 제목은 대개 『 』 내에 표기하나, 본 사례는 모바일 내 소설이므로 출판된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임의로 “ ” 내에 표기한다.

우선이다. 번역투 7에서는 생략할 수 없는 맥락이므로 인칭에 변화를 주어 재귀대명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대안이 된다.

번역투 10, 26: ‘모노’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니 것이다’, ‘-법이다’, ‘-셈이다’ 등으로 번역하는 데서 영향 받았다고 짐작하는 ‘니 것이다’는 발화 내용을 부각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주제를 부각시켜 강조하거나 단정할 때 사용할 수 있으나 오용하는 경향이 있다. 글쓰기에서 이 표현만 모두 없애도 글이 아주 매끄럽고 불품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대체로 맥락에 적절하게 바꿔 쓰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번역투 12: 한국어에서 직접 인용은 원문 안에 있는 단어나 문장 구조 뿐 아니라 문장 부호도 그대로 옮기며 심지어 맞춤법이나 내용이 틀려도 그대로 따오는 걸 말한다. 겹따옴표를 써서 인용되는 원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한다. 간접 인용은 원 표현의 개념이나 내용만 따다가 전하는 게 주목적이라 원 표현 형식을 그대로 옮기지 않으며 인용되는 부분에 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보문자는 ‘(이)(라)고’나 ‘하고’이며,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보문자는 ‘고’가 기본형이며 지정사일 때는 ‘라’이다. 따라서 번역투 12를 직접 인용문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겹따옴표와 마침표가 추가되어야 하고, 간접 인용문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종결어미를 바꾸는 동시에 간접 인용 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번역투 17: 원어를 그대로 옮긴 번역투 17은 원어를 모르는 독자를 아랑곳하지 않았기에 독자를 무시한 번역 방법이다. 해당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추가 정보로서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한다.

번역투를 수정하기 전 번역 텍스트와 수정 후 번역 텍스트를 비교하면, 한글에서 제공하는 문서정보 통계 상 글자 수가 484개에서 465개로, 낱말 수는 102개에서 100 개로 줄었다. 수정 후 번역 텍스트에 인용부호나 책 제목임을 알리는 부호를 추가 삽입했는데도 글자 수가 상당히 줄었다. 글자 수가 줄면서 의미 파악은 오히려 명확해졌다. 즉, 양안(兩眼)으로는 간단하고 짝막해진 문장을, 소리 내 읽으면 발음하기 쉽고 호흡이 편안해졌다는 걸, 텍스트성에서 살펴보면 메시지가 전하는 의미가 훨씬 이해하기 쉬워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번역투가 가독성을 떨어뜨리며, 이해하기 어렵고,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등

번역 품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을 얻는 주요인이 되며, 최종 번역 단계에서 원문과 번역문을 일일이 대조하는 고단한 작업을 거치지 않고, 단지 번역문만을 한번 읽어 내려가며 번역투를 찾아 수정만 해도 번역 텍스트의 품질이 상당히 향상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이다.

3.2 표본 번역 텍스트에서 번역투 분석

정보, 통신, 생명과학, 보건의료, 환경, 기계, 재료, 화학, 에너지, 원자력, 우주항공, 건설교통 등 해외 과학관련 분야 기사를 번역한 기사 가운데 GTB에서 제공한 2007년 9월과 10월분 100건에 대해 번역투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0건의 번역 텍스트에서 번역투를 추출해 유형별 건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빈도순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 보았다.

먼저 번역투를 유형별로 분석해 발생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 번역투의 유형별 건수와 백분율 현황

유형	건수	백분율	유형	건수	백분율
ㄴ 것	980	25.926%	부사의 형용사화	11	0.291%
ㄹ 수	46	1.217%	단수 표지	5	0.132%
-적	60	1.587%	복수 표지	188	4.974%
-성	12	0.317%	-중 하나	8	0.212%
만약(만일)	13	0.344%	진행형 (-고 있다)	552	14.603%
대명사 (그, 그들)	87	2.302%	완료 (-해왔다)	57	1.508%
가지다	164	4.339%	대과거 (-있었다)	17	0.450%
결정하다	11	0.291%	되다	172	4.550%
놓이다	2	0.053%	받다	7	0.185%
만들다	37	0.979%	-에 의하다	137	3.624%
믿다	10	0.265%	-게 되다	68	1.799%
발견하다	15	0.397%	-여 지다	58	1.534%
보이다	15	0.397%	-부터	65	1.720%

유형	건수	백분율	유형	건수	백분율
부르다	17	0.450%	-을 통해	74	1.958%
위치하다	9	0.238%	-에도 불구하고	11	0.291%
-임에 틀림없다	1	0.026%	, 또는	53	1.402%
제공하다	1	0.026%	, 그리고	59	1.561%
필요하다	36	0.952%	군더더기 표현	514	13.598%
무생물 주어	103	2.725%	오류표기	85	2.249%
복수 일반인	20	0.529%			
총 건수	3780	100%			

총 39종으로 분류한 번역투 유형에서 ‘ㄹ 수’, ‘군더더기 표현’, ‘오류 표기’는 엄밀히 말해 번역투는 아니나, ‘ㄹ 수’는 나쁜 글쓰기와 관련해 번역투 ‘-적’과 ‘-성’과 함께 언급되는 3대 표현이기에 분석 대상에 넣었고, ‘군더더기 표현’ 역시 좋은 글쓰기에 해당되지 않는지라 이에 포함했다. 군더더기 표현 가운데 몇 개 사례를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예 1] IPP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ITER의 내벽 재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2년이 남아 있다.
→ IPP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ITER의 내벽 재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2년이 남았다.

[예 2] 여기에서의 문제는 고 에너지 플라스마 입자가 벽에 부딪힐 때 벽에서 떨어져 나오는 원자가 플라스마에 침투하여 플라스마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 여기서 문제는 고 에너지 플라스마 입자가 벽에서 떨어지는 원자가 플라스마에 침투에 플라스마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 3] 연구진은 이 레이저가 아직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상온에서 동작하는 레이저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
→ 연구진은 이 레이저에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으며, 언젠가는 상온에서도 동작 가능한 레이저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상과 같이 군더더기 표현은 ‘남아 있다 → 남았다’, ‘만들어 내며 → 만들며’, ‘많이 있으며 → 많으며’, ‘-뿐만이 → 뿐’, ‘-라고 말하다 → -라고 하다’, ‘여기에서의 →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 -하기에, -해서’, ‘-하여 보다 → -해 보다’와 같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편이 바람직한 데도 장황하게 표현한 경우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번역투는 ‘ㄴ 것’이다. 약 26%나 차지하므로 번역가가 이를 자신의 번역 텍스트에서 걸러내 수정한다면 번역투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약 1/4 가까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 상위 18위권 번역투 현황

다음 도표는 발생 빈도순으로 18위까지 분석한 결과이며, 상위 5위권 내 번역투 유형을 별도로 표시하였다.

유형	건수 (3780건)	백분율	유형	건수	백분율	유형	건수	백분율
것	980	25.9%	의하다	137	4.0%	부터	65	2.0%
진행형	552	15.0%	무생물 주어	103	3.0%	적	60	2.0%
군더더기 표현	514	14.0%	대명사 (그,그들)	87	2.0%	그리고	59	2.0%
복수	188	5.0%	오류표기	85	2.0%	어지다	58	2.0%
되다	172	5.0%	을 통해	74	2.0%	완료	57	2.0%
가지다	164	4.0%	게 되다	68	2.0%	또는	53	1.0%

앞서 지적했듯 일본어 ‘モノダ’에서 비롯된 번역투 ‘ㄴ 것’이 전체 번역투에서 1/4을 차지할 만큼 빈도가 제일 높았다. 다음으로는 영어 진행형 ‘be v+ing’와 일본어 ‘동사+ている’ 구문에서 영향을 받은 ‘-고 있다’ 번역투로서 15.0%를 차지한다. 3위는 군더더기 표현으로서 14%를 차지하며, 이는 글 쓰는 습관에서 비롯되므로 평상시 주의를 기울여 교정해야 할 사항이다. 4위는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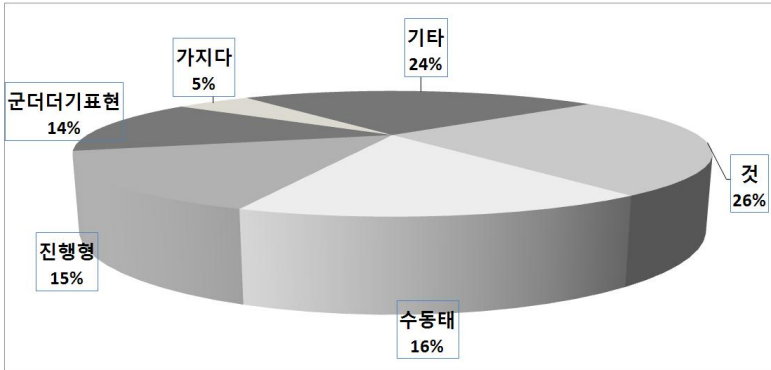
접미사 '-들'을 표기하지 않아야 할 자리에 표기한 경우로 5%를 차지한다. 영어는 '수사+명사+동사' 구조와 '명사+동사' 구조에서 수를 일치시켜야 하는 규정에 영향을 받지만, 한국어는 수 표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별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수사가 있는 경우는 명사에 복수접미사를 붙이지 않는다. 5위는 피동 표현 '되다'로 이 역시 5%를 차지한다. 분석 대상 텍스트가 과학관련 텍스트라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다. 그러나 실험 대상이나 결과에 대해 묘사하더라도 실험을 하는 숨겨진 주체(행위자)는 사람이므로 피동 표현을 자제하고 능동으로 표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상위 5위까지 백분율이 64%에 이른다. 군더더기 표현의 유형이 다양해 이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4개 번역투가 50%를 차지해 이들 4개 번역투만 걸러내 수정한다면 번역 텍스트의 품질을 상당부분 향상시킬 수 있다. 상위 5위권 외 영어 'have'에서 온 '가지다'라는 표현과 수동문에서 행위자를 나타내는 'by'에 대한 번역투 '-에 의하여', 무정명사에 사용한 주격조사 '이/가', '그/그들'과 같은 대명사 사용이 10위권에 해당됨을 도표에서 알 수 있다. 10위권에 드는 번역투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번역투를 70%정도 줄일 수 있다.

□ 피동문 관련 표현을 유표화한 도표와 피동표현을 통합한 순위별 번역투 현황

다음 도표는 4위권 내 드는 번역투와 모든 피동 관련 표현을 별도로 표시한 도표이며, 피동관련 표현을 통합한 순위별 번역투 현황이다.

유형	건수 (3780건)	백분율	유형	건수	백분율	유형	건수	백분율
것	980	25.9%	의하다	137	4.0%	부터	65	2.0%
진행형	552	15.0%	무생물 주어	103	3.0%	적	60	2.0%
군더더기 표현	514	14.0%	대명사 (그,그들)	87	2.0%	그리고	59	2.0%
복수	188	5.0%	오류표기	85	2.0%	어지다	58	2.0%
되다	172	5.0%	을 통해	74	2.0%	완료	57	2.0%
가지다	164	4.0%	게 되다	68	2.0%	또는	53	1.0%

‘되다’라는 어휘를 이용한 피동표현이나, 보조용언 ‘-게 되다’와 ‘-어 지다’를 이용한 피동표현, 피동문의 행위자를 나타내는 ‘-에 의하다’ 표현, 무정명사에 주격조사 ‘-이/가’나 주제격조사 ‘은/는’을 사용한 표현이 모두 피동문장 하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번역투이다. 이는 번역 텍스트에서 피동문 하나에서 여과할 수 있는 번역투가 다수라는 의미이다.



피동문관련 번역투를 통합해 한 범주로 묶어 번역투를 분석하니 빈도순위가 바뀌었다. 1위는 여전히 ‘-것’이었으나, 2위가 피동문관련 번역투로 바뀌었다. 3위는 진행형 표현 ‘-고 있다’이며, 4위는 군더더기 표현이었고, 5위는 ‘have’에서 비롯된 ‘가지다’ 표현이었다. 번역투에서 피동문관련 표현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 가를 잘 나타내는 결과이다. 피동문관련 번역투만 줄여도 16%의 번역투가 준다. 따라서 피동문과 관련된 번역투를 별도로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

□ 상위 20위권 번역투 현황

다음에 예시된 도표는 발생 빈도율이 높은 번역투 유형 20위권을 추출한 결과이다.

순위	유형	건수	백분율	순위	유형	건수	백분율
1	ㄴ 것	980	25.926%	11	-을 통해	75	1.958%
2	진행형	552	14.603%	12	-게 되다	68	1.799%
3	군더더기표현	514	13.598%	13	-부터	65	1.720%
4	복수	188	4.975%	14	-적	60	1.587%
5	되다	172	4.550%	15	, 그리고	59	1.561%
6	가지다	164	4.339%	16	-어 지다	58	1.534%
7	-에 의하다	137	3.624%	17	완료	57	2.0%
8	무생물주어	103	2.725%	18	, 또는	53	1.402%
9	대명사	87	2.302%	19	ㄴ 수	46	1.217%
10	오류표기	85	2.249%	20	만들다	37	0.979%

‘ㄴ 것’, ‘-고 있다’, ‘-들’, ‘되다’, ‘가지다’, 무생물 주어, 대명사, ‘-적’, ‘A, B, 그리고(또는)’, ‘-ㄴ 수’, ‘만들다’ 등 평소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이 대다수 높은 빈도를 보이는 번역투임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표현을 번역투라고 여기지 못하는 데 있다. 20위권에 드는 번역투에 주의를 기울일 때 번역투나 좋지 못한 표현 95%이상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4. 결론

번역 텍스트에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오역’과 ‘번역투’이다. 그 가운데 ‘번역투’는 원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안다 하더라도 원천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잣대이다. 대다수 번역가가 무의식적으로 번역투를 남용하듯이 일반 독자 역시 번역 텍스트를 읽어 내려가며 무의식적으로, 나면서 획득한 모국어 지식을 토대로 부적절하거나, 부자연스럽거나, 틀린 어휘나 문법, 용법을 가려내며 품질을 평가한다. 이러한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럽고, 틀린 어휘선택이나 표현을 ‘번역투’라 한다. 따라서 번역투를 줄이는 길이 곧 번역 텍스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된다. 번역자가 많이 사용하는 번역투를 목록으로 만들어 의뢰인에게 번역 텍스트를 건네주기 전, 마지막 번역 단계에서 자신의 번역 텍스트

를 한 사람의 독자인양 읽으며 목록에 있는 번역투를 걸러내 수정하는 방법은 손쉽게 번역 텍스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제시한 사례에서도 입증되었다.

GTB기사를 분석해 과학관련 분야 번역 텍스트에서 많이 발생하는 번역투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빈도가 높았던 번역투는 ‘-니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피동문관련 번역투로서, 부정명사(무생물주어)에 주체격 조사나 주격 조사 ‘-은/는/이/가’를 사용하거나, ‘-에 의해’로 표현되는 행위자 표현, ‘되다’, ‘-어 지다’, ‘-게 되다’ 등의 피동표현이었다. 세 번째로는 ‘-고 있다’ 형의 진행형 표현이었으며, 네 번째로는 의미를 중복 표현하거나 장황스럽게 늘이는 표현, 중첩 조사와 같은 군더더기 표현이었다. 다섯 번째로는 영어 'have'에서 비롯된 ‘가지다’ 표현이 차지하였고, 그 외 번역투가 다수 있었다. 이러한 번역투 표현을 줄일 때 번역텍스트의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 모든 번역투에 주의를 기울여 줄이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아주 소수 몇 가지에만 주의를 기울여도 번역 품질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상위 3위까지 차지한 번역투가 전체 번역투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이 57%에 이르고, 여기에 'have'에서 온 ‘가지다’를 포함하면 무려 62%에 달한다. 번역 텍스트를 의뢰인에게 넘기기 전에 번역자가 그저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번역투만 걸러내도 부정적인 요소 60%나 줄어 품질이 좋아지고, 군더더기표현까지 고려를 한다면 70%이상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셈이다. 따라서 마지막 번역 과정으로서 번역투를 걸러내고 이를 수정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참고 문헌

- 김태옥 · 이현호 옮김. 1995. 『텍스트 언어학 입문』. 서울: 한신문화사.
 (Robert-Alain de Beaugrande · Wolfgang U. Dressler.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 김현권 · 노윤제 옮김. 2001. 『번역의 사회언어학적 기반』.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Maurice Pergnier. *Les Fondements Sociolinguistiques de la Traduction*.)

김지원 · 이근희 옮김. 『번역학 이론과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Susan Bassnett. 2002. *Translation Studies*.)

오경순. 2007. 「일한 번역에서의 번역투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근희. 2005. 「영한 번역에서의 ‘번역투’ 연구」. 서울: 세종대학교 대학원.

_____. 2006. 「인지적 접근의 번역 모형」. 『번역학 연구』7:1, 131-154.

한국번역학회.

_____. 2008. 『번역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이석규 외. 2002.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서울: 역락.

전성기 옮김. 2001. 『번역의 오늘: 해석 이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Marianne Lederer. *La traduction aujourd' hui*.)

Bassnett, Susan. 2002.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Nida, Eugen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Abstract]

The Way of Improving Translated Texts' Quality by Removing 'Translationese'

Lee, Geun-heui
(Sejong University)

Most translated texts are evaluated first by general readers who are native speakers of the target language but not experts in the original language. The readers unconsciously assess the quality of a translated text on the basis of vocabulary, grammar, and idiomatic or pragmatic usage of the vernacular language. The worse the quality of a text is, the more 'translationese' appears because 'translationese' is perceived as unnatural, impenetrable and even awkward. It is caused by extremely literal approaches to the translation process or imperfect knowledge of the target language.

Therefore, the quality of translation would be improved, if translators removed translationese produced during translation process before submitting the work to their clients. This must be the final step of translation.

This paper proves the aforementioned assumption through analysis of translated scientific articles from English into Korean excerpted from a well-known internet site.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s typical types of translationese, listed according to frequency of occurrence. Translators must remove these errors listed on the paper to achieve better quality.

▶ Key Words: translationese, the quality of translation, assessment, evaluation

이근희

세종대 인문사회학부 영어영문학과 초빙교수

ghlee@sejong.ac.kr

관심분야: 번역투, 번역테스트 품질 향상, 번역 텍스트 평가, 번역투 유형,
동화 번역, 영상 번역

논문투고일: 2008년 11월 9일

심사완료일: 2008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2008년 12월 10일